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운동: 사파티스타운동과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CONAIE)에 대한 비교 연구*

조영현
서울대학교

조영현(2015),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운동: 사파티스타운동과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CONAIE)에 대한 비교 연구.

초 록 다양한 사회운동의 출현은 라틴아메리카 정치 무대를 변화시켰다. 이것들은 원주민운동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CONAIE)과 사파티스타운동이 원주민운동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이 원주민운동들은 근대/식민세계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를 의문시하고 거기에 도전했다. 두 운동은 더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항헤게모니 성격을 지닌 사파티스타운동과 CONAIE의 출현 배경과 조직, 담론과 투쟁 등을 비교해보고 두 운동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핵심어 CONAIE, 사파티스타운동, 대항헤게모니, 신자유주의, 식민성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

I. 서론

각 국가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은 사회·정치적 변혁을 선도하고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영향으로 이 대륙에서도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계급의식을 기반으로 한 노조와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68년을 기점으로 유럽과 남미에서는 환경운동, 여성해방운동, 인권운동, 반전평화운동, 반핵운동, 성적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출현했다. 노동운동 중심의 구사회운동과 구분하기 위해 알랭 투렌(Alan Touraine), 알베르토 멜루치(Alberto Melucci) 등은 이러한 흐름의 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명명했다. 가치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신사회운동은 무엇보다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자율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30년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80년대 이후 이식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세계화가 파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심각한 외채위기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하락했고 투자는 사라졌다. 경제는 침체되고 성장이 멈추자 경제주체들 사이에 불안이 증가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1차산품 수출의 정체, 교역조건의 악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실패 등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과 가격통제를 강조한 CEPAL의 비정통파(구조주의) 정책이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실패하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통화주의를 강조한 IMF 중심의 정통파 정책이었다. 재정긴축과 통화량 감소를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자 워싱턴 시에 기반을 둔 미국의 재무성과 그 영향권 하에 있던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들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안정화, 무역자유화, 금융개방, 민영화 등을 통해 경제에서 기존 국가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김기현 · 권기수 2011, 136-169). 이런 정책들은 생존 문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취약 계층인 하류계층과 가난한 사람들, 특히 주변부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원주민과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점차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순적 국가 구조를 인식하게 되었고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사회적 분쟁이 급증했다. 이런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출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운동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의 증가와 신자유주의를 이식시킨 정권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촉발되었다. 사회운동은 9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전 대륙으로 확산되었고 좌파정부들을 출현시키는데 기여할 만큼 성장했다(Bernardo Mazzella 2009).

198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사회운동들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하고 저항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 체제를 의문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위해 우연히 나타난 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의하고 불평등한 현실과는 다른 사회를 건설하려 분명한 목표를 가진 운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원주민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운동¹⁾과 에콰도르 원주민민족연맹(CONAIE)²⁾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런 노선을 대표한다고

1)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운동은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군사·정치적 조직인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있고, 운동의 실질적 토대 부분인 원주민 공동체가 있다. 또한 이들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시민사회 부분이 있다. 사파티스타운동이란 용어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치아파스 지역의 원주민 중심의 사회운동을 포함한 보다 외연이 확장된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조된 사파티스타 혹은 사파티스타운동이란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란 용어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사파티스타운동에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 Confederación de las Nacionalidades Indígenas del Ecuador(CONAIE)는 학자들에 따라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 에콰도르원주민국민연맹, 에콰도르원주민전국연합, 에콰도르원주민자치공동체연맹, 등으로 번역된다. Nacionalidades의 해석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본인은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이란 용어를 선호하기

할 수 있다. 이 원주민운동들은 단순한 경제 문제 및 계급 문제를 넘어, 사회의 근대화 과정, 신자유주의라는 극단적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와 삶의 질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발전했다. 이 원주민 운동들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을 다른 지역 사회운동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을 제공해 주고 있다.³⁾ 환경, 성적소수자, 인권, 평화를 이슈로 한 운동은 유럽에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토성, 자치, 집단적 권리, 탈식민을 요구하는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사회 변혁에 있어 원주민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80년대 중반이후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한 원주민운동이 모두 동일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정치·사회적 실천들이 존재한다. 유사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파티스타운동과 CONAIE 원주민운동도 모두 자치와 자결을 강조하고 정체성과 목표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드러진 차이도 분명히 드러난다. 조직적 특성이나 투쟁의 형태가 다르고 집단적 활동에 대한 이해,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인식, 국가권력과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이 두 운동의 출현 배경과 조직, 투쟁과 실천, 그리고 정치·사회적 담론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이차적 목적은 이 운동들이 어떤 의미에서 대항 헤게모니적 특성을 가진 운동인지도 드러내는 것이다.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긴 용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CONAIE라는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 3) 원주민 정체성은 무엇보다 종족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정체성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제로 인해 강화되기도 하고, 자신들의 권리 회복 투쟁 속에서 더 공고해 지기도 한다. 원주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원주민 정체성은 존재했지만, 동시에 조직화, 리더의 역할,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레비야 블랑코의 글을 참조하라(Revilla Blanco 2005, 49-65).

II. 사파티스타운동과 에라도르원주민족연맹의 출현 배경과 조직적 특성

1. 출현 배경

1994년 사파티스타들의 봉기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억압과 착취, 무시에 대한 저항이자 기본권에 대한 투쟁이었다. 특히 스페인 정복이후 지난 500년 간 축적된 문제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봉기는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을 의미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사파티스타 이전에도 수많은 원주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사파티스타에 의해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발표한 “라칸돈 정글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500년 투쟁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노예제도에 맞서 싸웠고, 독립전쟁 중에는 스페인에 맞서 싸웠으며,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 제국주의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싸웠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헌법을 선포하고 우리 땅에서 프랑스 제국을 쫓아내기 위해 싸웠다. 그 후에 개혁법의 정당한 적용을 거부하는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으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처럼 가난한 사람인 비야와 사파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총알받이로 사용해 우리나라의 부를 약탈해 가려는 세력에 의해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거부당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에게겐 교육은커녕 우리 머리를 가릴 만한 지붕도, 갈아먹을 땅도, 일자리도, 의료시설도, 식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대표자를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외국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도 없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도 없다.(월터 미늘로 2010, 52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파티스타의 반란의 원인은 먼저 착취와 인종차별과 같은 식민의 유산, 원주민 존엄과 권리, 문화에 대한 무시 등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봉기의 직접적 원인은 근대화론과 발전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제도혁명당의 원주민 동화정책 등과 연결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는 원주민 봉기의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 정책은 전통적 구

조에 얽매어 있는 원주민들을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장애 요소로 파악했다. 전통적 구조를 혁파해야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멕시코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수행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은 잠시 “멕시코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이것은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의 희생을 전제하고 달성된 것이었다. 농촌에 대한 방치로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일자리를 찾아 농민들은 대거 도시로, 해외로 이주해야만 했다.

80년대 발생한 경제침체와 외채위기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혁명당과 멕시코 지배계층이 선택한 것은 미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철폐, 구조조정,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의 활성화, 인플레이션 감소를 통해 일부 세력에게 혜택을 제공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과 가난한 농민, 원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직접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삶의 위협요인이 되었다. 원주민 공동체의 공유토지 에히도(ejido)를 보호하던 1917년 헌법 27조가 199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에히도를 국내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애너 캐리건 2002, 707). 이것은 제도혁명당 소속 살리나스 대통령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공유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기반이 없던 농민과 원주민들은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토지문제는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사파티스타 봉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애너 캐리건은 멕시코 원주민 봉기에 있어 토지 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파티스타 반란의 기원을 찾아보면, 그것은 토지의 불평등한 분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줄곧 원주민 농민과 원주민 조직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과 지난 10년 동안 경제 정책으로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가 붕괴된 것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파티스타 반란을 일으킨 주원인은 멕시코 헌법 제 27조에 명시된 대로 원주민에게 토지를 주지 않으려는 국가정책에 있었다. 라칸돈 정글의 파괴와 같은 그 밖의 병폐는 모두 이런 국가의 부패하고 차별적인 토지 분배정책에서 비롯되었다.(애너 캐리건 2002, 705)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단 양도받은 원주민 공유지에 대한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1915년 ‘혁명 농지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서 치아파스 원주민들 삶에 치명타를 가했던 것이다. 게다가 북미자유무역 협정 선포는 원주민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압박으로 다가왔다(Harvey 2011, 166; 마르코스 2002, 47). 원주민들이 주도한 모든 평화적 시위와 항의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원주민들의 외침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원주민은 정치적 대표성이 없었고, 정치적 역량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애너 캐리건은 제도혁명당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된 원주민에 대한 무시정책과 방치, 그리고 치아파스 주의 정치·경제 구조를 장악한 원주민 정치 거물들인 카시케 네트워크도 치아파스 봉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애너 캐리건 2002, 711-712). 결국 원주민들이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장봉기뿐이었다.

에콰도르의 CONAIE 원주민운동의 출현도 사파티스타의 경우와 유사하다. 식민적 착취와 인종차별과 같은 식민의 유산, 원주민 존엄과 권리, 문화에 대한 무시, 근대화론과 발전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원주민 배제의 상황이 CONAIE 출현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원주민들이 공유하는 식민적 경험과 유산은 이에 대항하는 원주민의 ‘반식민정체성’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Altmann 2013a, 25). 서구의 근대성은 ‘원주민 적인 것’을 무지, 가난, 야만적인 것으로 보고 문화적·인종적 측면에서 열등한 것으로 상징화 했다(Davalos 2002, 2-3). 서구의 서열화 된 가치체계에서 보면 원주민은 어린이와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1833년 에콰도르 헌법은 원주민을 같이 동거하는 주민으로 인정했지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었다. 백인과 메스티소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배계급은 원주민을 배제한 것이다. 게다가 좌파들은 원주민을 계급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농민계급으로만 인식했다. 따라서 좌파는 원주민 문제의 문화·인종적 요소보다는 경제문제, 즉 토지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오류를 범했다.

20세기 중반까지 에콰도르 국가 경제의 토대는 아시엔다 체제에 있었다. 이

체제는 원주민 착취를 쉽도록 만들었다. 에콰도르도 멕시코처럼 근대화, 발전주의 정책 때문에 원주민 공동체가 와해되는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 아시엔다 체제가 빠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었다. 아시엔다 체제는 붕괴되고 기업농들이 들어섰으며, 대규모 목축단지들이 조성되었다. 아시엔다 주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될수록 기업가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에콰도르 근대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은 농업 노동자나 실업자로 전락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 공동체가 해체되는 근대화 과정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과 농민들은 1964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했다. 이 제한적 농지개혁이 원주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농민과 원주민 투쟁의 자그마한 성과였다. 이 성공의 경험은 후일 에콰도르 CONAIE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다.

에콰도르 CONAIE 원주민운동이 출현한 것은 그들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 해주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와 사회구조 때문이었다. 이런 정치는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원주민 지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기존 정치가 원주민들의 식량, 고용, 토지, 주택, 보건, 교육, 정의, 민주주의, 평화 등 주민들의 공공선 증진을 위한 것 보다는 소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멕시코의 경우와 달리 에콰도르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 자체가 CONAIE와 같은 원주민운동 탄생의 직접적 배경이 되지는 않았다. CONAIE가 창설된 1980년대 중반까지 원주민들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체가 파악되자 CONAIE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2. 조직적 특성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조직화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세력에는 단지 원주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좌파 노선의 젊은이들과 가톨릭교회의 진보 진영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Diez 2002, 3). 1960년대 후반 창설된 사회주

의 노선의 게릴라 조직인 ‘민족해방군(Fuerzas de Liberación Nacional)’의 잔존 세력이 1983년 치아파스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조직화되었다. 이념적으로 좌파였지만 모두 동일한 노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게바라주의 등의 이념 노선이 혼재해 있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마르크스 부사령관도 이들과 함께 치아파스로 들어가 원주민 의식화 작업을 수행했다. 사회변혁과 혁명익에 고취된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혁명의 전위라고 인식했다. 멕시코 사회변혁의 걸림돌인 국가-당체제의 산물인 제도혁명당을 해체시킨 후 사회주의적 인민 공화국을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활동하기 전부터 원주민들은 이미 상당부분 의식화되어 있었고, 비판정신에 충만해 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가톨릭교회가 원주민들의 조직화를 독려하고 의식화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 교구의 사무엘 루이스 주교는 해방신학 노선의 진보적 주교로 원주민 사목에 적극적이었다. 단지 사목 뿐 아니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교구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원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토지사목위원회’를 창설해서 지원했고, 1974년 원주민 대회도 개최했다. 또한 사목위원들을 교육하고, 교리교사와 원주민 종신부제를 양성했다(Jo 2007, 200-214). 후일 이들 중 상당수는 사파티스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원주민과 외부 좌파가 서로 결합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네그리와 하트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파티스타가 낡은 게릴라 모델과 삶정치적인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잇는 연결고리적 성격과 지역적 경험들을 전지구적 투쟁들에 어떻게 연결되는 지 잘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은 군대이지만 동시에 사회운동적인 측면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사파티스타 조직의 역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소통은 사파티스타 혁명관의 핵심이다. 또 그들은 수직적인 중앙집중적 구조들이 아닌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들을 창조할 필요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

한다. 물론 우리는 이 탈중앙집중적 조직 모델이 EZLN의 전통적인 군사적 호명법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사파티스타는 어쨌든 그들 자신을 군대라고 부르며, 군대적 직함과 서열의 배열 속에서 조직된다. 그렇지만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사파티스타가(중앙집중적인 군사적 위계를 향한 경향들을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게릴라 모델의 전통적 형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위계들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수사학 특유의 세련된 뒤집기와 아이러니로 권위를 탈중심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아이러니 자체를 정치 전략으로 만든다.(네그리 · 하트 2008, 120)

사파티스타들은 본래 소수의 정치 · 군사적 게릴라 집단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차아파스의 원주민 공동체들의 투쟁과 결합하면서 봉기를 앞두고 군사부대로 스스로 전환했다(이원영 1998, 380).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게릴라 집단에서 군대,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전혀 다른 성질이 공존하는 기이한 조직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원영은 이런 조직의 이질적인 모습을 원주민 공동체의 재건, 자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변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기 위한 전략으로 현실에 대한 적응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사파티스타들은 사회 혁명을 하나의 정치 조직 혹은 하나의 사회 집단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정치적 동질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며, 다양한 사회적 전선들, 수많은 방법들, 다양한 사회적 형식들, 참여의 다양한 수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상이한 투쟁들을 승인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제안들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당면한 혁명의 요체로 이해한다.(이원영 1998, 380)

사파티스타 투쟁의 정점에는 원주민비밀혁명위원회(Comité Clandestino Revolucionario Indígena, CCR)라는 총사령부가 있다. 이 최고 권위기구에는 초칠, 첼탈, 토홀라발, 출, 맘, 그리고 소쿠에와 같은 원주민 종족 공동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도 이 기구의 지도를 받고 원주민 무니시피오 자치를 주도하는 ‘좋은정부위원회’도 이 기구의 감시를 받는다. 그러나 이 조직은 엄연한 군대 조직이다. 따라서 군사조직의 구조를 갖고

계급적 구조를 갖는다. 마르코스도 이 조직에서 부사령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대화와 토론 등 민주적 요소가 작동되지만 정부군과 대치 중인 상태에서 민주적 요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분파주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게다가 정부군이나 정보부의 감시와 조직의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적이고 비밀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타조직과의 연계를 어렵게 만들고 비개방적 특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Rosa Quiñones 2007, 6-7). 이것은 운동의 동원력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부분에 대한 제약일 수밖에 없다. 멕시코의 민주혁명당, 노동당과 같은 좌파 정당과의 소통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다행히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것이 대변인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역할이다. ‘네트워크 전사’라는 별명처럼 인터넷과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연대를 끌어내는 것은 그의 탁월한 소통 능력에 기인한다. 또한 사파티스타의 이념과 활동에 동조하는 네트워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 ‘사파티스타민족해방전선(Frente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도 원주민비밀혁명위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했으며 다른 조직,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창출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에콰도르 CONAIE 원주민운동은 1986년 36개 원주민 단체들이 통합되면서 조직화되었다. 통합 이전에는 지역 별로 세 개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원주민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내륙지역 원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에쿠아루나리(ECUARUNARI)와 아마존 지역을 대표하는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연맹(CONFENIAE)’, 그리고 해안지역 원주민들을 조직하고 있었던 코나이세(CONAICE) 등이 각각 해당 지역의 맹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⁴⁾ 에쿠아루나리가 토지회복이나 농지문제를 강조했다면,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연맹’은 본인들의 영토 수호에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각 지역에 따라 단체들이 갖는 우선적 요구들이 달랐기 때문이다. CONAIE는 이 단체들을 하나로 만들면서 명실상부한 에콰도르 전체를 대표하는 원주민 조직이 될 수 있었다. 2007

4) CONAIE를 구성하는 세 단체의 비율은 ECUARUNARI 45%, CONFENIAE 30%, CONAICE 25%이다.

년 CODENPE의 연구에 의하면, 총 804,801명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조직을 통해 CONAIE에 가입되어 있었다(Altmann 2013a, 14).

CONAIE 최고의 기구는 아홉 명의 최고지도자로 구성된 총회이다. 산간, 해안, 아마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 별로 세 명씩 최고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이 모임은 매 삼년 마다 열리며 조직을 대표하는 의장이 선출된다. 그리고 조직의 투쟁 전략과 발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이 모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CONAIE는 조직의 핵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원주민 공동체와 마을의 공고화, 원주민 토지와 영토의 수호, 이중 언어교육 강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한 투쟁, 사회조직과 정체성 강화, 공화국 헌법이 인정하는 원주민 집단권의 실현, 상호문화적 사회 건설, 권력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증진, 원주민 사이에 정의와 평등 달성,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국제단체들과 연대 유지.⁵⁾

원주민운동 조직들의 통합으로 등장한 CONAIE는 조직적 차원에서 진전이라는 의미 외에도 질적 도약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단순한 권리회복 투쟁을 벗어나 정치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회변혁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Rosa Quiñones 2010, 152).

멕시코의 경우처럼 에콰도르도 인류학자, 비정부기구, 지식인, 좌파 정당들과 함께 가톨릭교회의 진보세력이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출현에 크게 기여를 했다. 특히 원주민이 처한 불의나 불평등의 상황을 의식화시키는데 앞장섰던 해방신학을 추종하던 세력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지원을 받았다(Rosa Quiñones 2010, 168). 대표적인 인물로 ‘원주민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리오밤바 교구의 레오니다스 프로야노 주교가 있었다. 그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토지사목위원회’를 조직해서 원주민들의 토지 확보 투쟁을 지원해 주었다. 토지와 토지에 대한 권리회복 문제는 원주민 요구의 핵심사항이었다(Martínez 2005, 1). 그는 원주민들의 권리

5) <http://web.archive.org/web/20150205121057/http://conaie.org/index.php/en/conaie> 참조. CONAI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수호 투쟁을 위해 자체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성당 등 교회 건물들을 그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제공했다. 교회의 교육기관을 통해 원주민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앞장섰다. 원주민들이 사회의식과 비판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톨릭교회의 의식화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CONAIE는 크게 보면 세 개의 거대 조직 간 경쟁이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사파티스타에 비해 보다 개방적이다.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투명하다. 다양한 세력 간의 집단적 운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상호견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단체나 행위자들과 연대가 쉽고, 협력이 수월하다. CONAIE의 이런 조직적 특성은 원주민과 다른 사회세력을 움직이는 동원능력을 배가시킨다. 또한 조직의 유연성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전략적 대안도 풍부해지는 장점이 있다(Rosa Quiñones 2007, 6-7).

III. 사파티스타운동과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의 담론과 투쟁

1. 담론

사파티스타운동은 보편적 인권 문제를 꺼내며 멕시코 국내 사회 뿐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외쳤다. 인권은 사파티스타의 담론의 중심축이자 원주민 권리 회복 투쟁의 원리이기도 하다. 인권 담론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기 쉬운 테마이자 동조자를 확보하기 쉬운 감성적인 면이 기본에 깔려있는 주제이다. 동시에 약자의 인권 유린 문제는 억압에 대한 고발과 쉽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사파티스타들은 비인간적 상황과 대우 속에서 지난 500년을 살아야 했던 원주민들의 절규를 선언문이나 통신문에 담아내 세계 시민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인권 문제는 윤리나 정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파티스타의 투쟁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유용한 담론이었다.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 논리는 사파티스타들의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마야 원주민들은 공동체성에 기초해 연대의 가치나 상호보완적 공생의 삶을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보다

자연을 대상으로 여기고 착취하는 근대적 사유와는 양립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Garcia Gualda 2010, 26-28). 그들은 경쟁 논리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발전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예로부터 공유자산과 공유지를 토대로 집단적 생활을 영위했던 원주민들에게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멕시코가 독립이후 백인과 메스티소 중심의 서구식 단일국민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만들면서 원주민과 그들의 세계관은 배제되었다. 사파티스타는 자신들의 삶과 별개인 체제를 억지로 강요받는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살려내려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근대화 논리의 절대성을 부정했다. 서구식 근대성은 서구의 역사와 현실을 반영할지는 몰라도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위상을 갖는 보편적 사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파티스타들은 서구식 개발 논리에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개발’이 그들의 잃어버린 토지를 되돌려 받거나 자율과 자치를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해리 클리버 1998, 48). 이것은 오랜 착취의 경험, 즉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낸 결과이다. 같은 논리에서 사파티스타들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사파티스타들이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총체적 차원에서 지적한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각인되었다. 이것은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을 결성한 주요 세력이 좌파 젊은이들과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세력인 원주민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치아파스에 거주하는 사파티스타 원주민들에게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동일한 언어로 이해된다. 치아파스에 자본주의가 남긴 흔적은 석유와 가스를 가져가고 남긴 환경 파괴와 농업 황폐화, 엄청난 인플레이션, 매춘, 알코올 중독, 빈곤과 같이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자본주의는 치아파스에 너무나 많은 공물을 요구하는 괴물과 같은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에 요구한 것은 “피눈물과 비지땀이라는 공물이었다”라는 절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인식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마르코스 2002, 104-132). 부사령관 마

르코스의 다음 진술을 통해 사파티스타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양이 어떠한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이자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을, 그리고 (그 자신의 논리에 따라 꼼꼼히 정의된) 정부, 개인, 그리고 자연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의 자신의 요구에의 종속을 열애한다. 전략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사유화, 식량 및 주택 보조의 감축, 교육 투자의 축소, 감옥의 증가, 사형의 찬양, 노조 파괴, 토지 엔클로저, 더 낮은 임금, 더 높은 이윤, 화폐적 테러주의, 수입 대체적 발전의 수출 지향적 발전으로의 대체, 자본의 자유 이동,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 인종주의의 강화, 반(反)페미니즘적 역공격, 농민에 대한 강화된 저항도 전쟁, 그리고 자연의 상품화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자유와 효율성, 그리고 이윤의 깃발 아래에서 전개된다.(해리 클리버 1998, 140-141)

또한 마르코스는 신자유주의가 노동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탐욕과 이윤을 열광적으로 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친이윤적이고, 친기업적이며, 반임금적인 정책과 반노동적인 정책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다(해리 클리버 1998, 139).

사파티스타들은 기존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정치를 꿈꾼다. 기존 정치가 정치세계를 장악한 소수의 지배계급의 향연으로 축소되고 또 절대적으로 부패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인 민중이 배제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다른 정치(La otra política)’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자 그들의 국가해방프로젝트인 “다른 캠페인(Otra campaña)”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파티스타는 무장봉기를 통해 국내와 국제 무대에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멕시코 정부, 의회, 정당들이 사파티스타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협상이나 대화를 접고 침묵의 기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제 6차 라칸돈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침묵은 깨졌다.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대안세계 건설을 위해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정당들 주도의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권력 장악이 아닌 민중을 아래로부터 조직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시민사회와 민중 연대를 통해

정치지형을 바꾸려고 ‘다른 캠페인’을 선언했다. 이것은 기존의 무장봉기나 폭력을 통한 사회변혁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멘티니스 2009: 70). 사파티스타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일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고 선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이끄는 민주혁명당(PRD)을 포함한 어떠한 좌파 정당세력에게도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Garcia Gualda 2010, 38-40). 오히려 마르코스는 전국을 순회하며 민중들의 목소리, 특히 소외된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데 집중했다. 시민사회와 수많은 민중단체들이 이런 사파티스타의 움직임에 호응을 보였다. 사파티스타들은 기존 정당, 정부, 친 정부 노선의 거대 노조를 자신들의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았다. 이 조직들은 멕시코 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패의 상징이자 환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사파티스타의 이런 전략 변화와 태도는 그들의 독특한 권력관에서 파생된 것이다. 사파티스타는 권력을 강제적 지배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투쟁을 대항권력(counter-power)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반권력(anti-power)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사회변혁이나 혁명을 꿈꾸는 세력들은 기존체제나 권력과 싸울 수 있는 대항권력 형성에 집중한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처럼 권력 장악과 권력투쟁에 집중하는 바람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국가권위주의나 관료주의 등과 같이 혁명 내부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권력 모순을 재생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영현 2015, 117-118). 따라서 사파티스타들의 반권력 담론은 대항권력이 아니라 기존 권력, 즉 지배의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 지배의 해체를 통해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창출하려는 것이다(홀러웨이 2002, 66). 사파티스타들은 국가권력 장악을 자신들의 운동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점에서 다른 운동들과 차별화된다. 국가권력 장악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 전 영역에서 권력관계를 민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Hervery 2011, 166-169). 국가권력 장악과 사회의 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혁명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간존엄성과 상호 인정에 기반을 둔 “모두가 배제됨 없이 공존하는 세계(Un

mundo donde quepan todos los mundos)”를 건설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복종하는 권력(El poder obedencial)’이란 말은 사파티스타의 권력관을 잘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명령하고 정부는 복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엔리케 두셀이나 네그리와 하트 등의 용어를 빌려 사파티스타의 민중권력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란 용어가 긍정적 의미를 가질 때는 그것이 민중으로부터 샘솟는 권력, 개방적 권력, 탈중심적 권력일 때이다. 사파티스타들은 권력을 장악하거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인 민중으로부터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중권력은 제헌권력이다. 민중과의 연계가 끊어져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개하는 정치는 부패한 권력이 발현되는 영역일 뿐이다. 그들은 민중권력, 공동체권력과 정치권력을 대립시킨다. 민중의 의지가 피처럼 온 몸을 순환할 때만 그 몸은 부패한 시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중의 의지를 실천하지 않는 권력은 ‘물신화한 권력’으로 폭력과 지배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권력이 곧 부패한 권력이 된다. 사파티스타들은 기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정치에 개입하면 부패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민중과 결합된 사회운동의 성격을 유지했다. 정치사회나 국가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제한적이거나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려 한다.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민중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파티스타들에게 현재의 국민국가체제는 원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국민을 배제하는 체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변혁시켜야 할 대상이다.(조영현 2015, 118-119)

사파티스타들은 붕기 시작부터 자신들을 이전의 중미 예컨대 산디니스타 혹은 여타 지역의 게릴라 운동과 확실하게 차별화했다. 그리고 권력 쟁취,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제 공산주의 등등의 전통적인 레닌주의적 목표들을 명백히 거부했다(해리 클리버 1998, 74). 앞서 살펴본 데로 사파티스타들을 ‘21세기 게릴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념이나 담론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CONAIE도 사파티스타의 경우처럼 인권 문제를 핵심으로 원주민들의 권리회복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CONAIE는 원주민공동체의 집단권(Derechos colectivos)과 자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1998년 헌법에 이러

한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으나 2008년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원주민의 집단으로서의 권리와 자치 등이 다른 다양한 권리들과 함께 명문화되었다. 헌법을 통해 원주민의 정체성 보호권, 무형의 자산인 원주민들의 고유지식에 대한 보호권, 공동체 토지 소유권, 원주민 구역 내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과 운영권이 보장되었다. 석유나 가스 같은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경우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헌법은 원주민공동체의 자체 관습법을 인정했고, 고유 법정과 관리자 선출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치권도 부여했다. 그것은 CONAIE가 분열되지 않고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통일된 단체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던 정권들이 정당성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치력을 키워왔던 원주민운동과 시민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모든 요구는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 변혁의 메가 프로젝트인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⁶⁾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들의 우주관이자 삶의 방식에서 유추한 삶의 원리이다. 동시에 2008년 에콰도르 제헌헌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인 동시에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 수막 카우사이는 스페인어로 el buen vivir로 번역되었다. 이 개념은공존과 공생을 강조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존뿐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도 포함된 것이다(Gudynas 2011, 6). CONAIE의 의장이자 대선 후보였던 루이스 마카스는 수막 카우사이가 원주민의 공동체적 삶의 핵심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Macas 2011, 51). 심바냐는 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인디오 국민들과 부족들은 수천 년 동안 공동체적 삶을 실천해 왔고 또 유지해왔다. 자치, 공정, 평등, 상호성에 기초한 공동체주의는 모든 인

6)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조영현·김달관(2012) 논문을 참조하시오. 수막 카우사이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구상한 『El Buen Vivir를 위한 국가 계획 2009-2013』에 녹아있으며 구체적인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기존 헤게모니 체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충돌을 빚고 있다.

디오 국민과 부족의 원리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공동체주의는 모든 구성원의 복지와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집단적 특징을 지닌 사회정치적, 경제적 체제이자 재산권의 체제이다. 우리들의 공동체적 체제는 역사적으로 외부 정치, 경제적 과정에 적응하며 변화했다. 그러나 결코 사사지지 않았고, 일상과 인디오 국민과 부족들의 가정과 공동체 내에 존속했다. 우리가 보호하는 사회정치적 모델은 공동체적, 상호문화적 사회이다. 새로운 다국민국가에서는 가족 재산과 공동체 재산, 공공 재산이 강화될 것이고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제는 가족적, 집단적, 공동체적 특성을 통해 조직될 것이다.(Simbaña 2011, 226)

이런 공동체적 인식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연과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는 심오한 상호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될 수 없이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2008년 신헌법은 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고 부르며 그 것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한다. 이 헌법 10조는 자연을 “권리들의 주체”라고 명시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이 자연에는 자연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파티스타와 마찬가지로 CONAIE도 자연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근대 자본주의 시각과 신자유주의 경제발전 모델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자연을 단순히 도구이자 착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사유를 극복하고 생태중심, 생명중심적 전망을 강조한다(조영현 · 김달관 2012, 140-147).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CONAIE도 사파티스타처럼 신자유주의가 척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CONAIE는 수막 카우사이와 원주민 자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근거로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와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 개념을 강조했다. 2008년 에콰도르 신헌법은 에콰도르가 다국민국가이며, 상호문화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이 개념들은 일종의 국가 개조와 재구성을 위한 정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CONAIE는 먼저 단일국민국가(Estado uninacional)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국가는 근대가 탄생시킨 국가모델로서 그 자체로 배제적, 동질적, 단일 문화적, 단일 언어적 특징을 갖는다. 단일문화에 의존한 국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고 패권

적인 지배문화에 동화된 하나의 국민만을 인정한다. 여기에 원주민들의 위치는 항상 주변부 이등 국민의 자리뿐이다. 이 모델에서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주민을 국가 분열을 초래하는 장애물로 인식한다. 모든 차이들은 헤게모니를 가진 문화에 동질화 과정을 통해 흡수되거나 포섭된다. 원주민이나 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일국민국가 모델에서는 문화, 역사적 과정, 사고방식, 권리의 실천, 민주주의, 정부와 관련해서 그들이 제대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대표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CONAIE는 하나의 국가에 백인-메스티소 모델에 통합된 하나의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족과 부족들로 구성된 여러 원주민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조영현 · 김달관 2012). 김달관은 다국민국가 모델이 앞서 언급한 포용적 국가 모델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다국민국가는 동일한 정치 공간(통치권)에서 여러 개의 국민공동체가 공존하는 국가모델로서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 기초한 복수주권에 따라 국민을 규정하는 국가모델이다. 즉 다국민국가는 복수의 국민이 인정되는 국가모델이다.(김달관 2015, 95)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고유 영토와 고유문화, 고유한 종족성과 언어를 가진 또 다른 국민임을 인정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국민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원주민은 백인과 메스티소와 “다르지만 동등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다국민국가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은 헤게모니를 지닌 서구 백인-메스티소 중심의 단일국민국가의 모델이었다(Olvera Salinas 2011, 7). 즉 다국민국가 모델은 넓은 의미에서 원주민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 잔존하는 신민성(*la colonialidad*)을 극복하려는 탈식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CONAIE는 에콰도르가 다국민국가가 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조영현 · 김달관 2012). 다국민국가 논리를 주장한 배경에는 원주민 자치 보장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Altmann 2013a, 28).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은 특정 공간 안에 존재하는 문화들의 복수성

을 묘사하는 다문화성(Multiculturalidad)과 다른 개념이다. 월터 미놀로는 다음과 같이 다문화성의 한계를 설명한다.

‘다문화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식, 교육, 국가와 정부의 개념, 정치경제학, 도덕 등의 지배적인 원리를 국가가 통제하고, 이러한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민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정치, 경제, 윤리의 토대를 이루는 ‘인식적 원리’에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월터 미놀로 2010, 200)

그러나 상호문화성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지식, 다른 실천, 다른 논리, 다른 합리성, 다른 원칙들 사이에 상호행위를 추구한다. inter는 그 자체로서 차이 또는 타자를 관용하고, 인정하는 단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상호문화성 개념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소통 강화와 통일성이 촉진되는 장점이 있다(조영현 · 김달관 2012). 월터 미놀로는 다음과 같이 상호문화성이 갖는 의미를 요약했다.

‘상호문화성’(=상호인식론)은 원주민들이 국가 건설과 교육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요구이다. 다시 말해, 상호문화성은 근대적 국민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주변부에 내몰린 키추아 문명과 언어를(미국의 ‘다문화주의’처럼)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 주는 단순한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상호문화성은 하나 이상의 타당한 우주관으로 구성되는 복합문화적(pluri-cultural) 국가를 지향한다. 지식의 차원에서 정치이론과 경제의 ‘복합문화성’과 윤리학과 미학의 ‘복합문화성’은 건설해야 할 유토피아적 목표이며, 자유주의 공화국이 균열되고 침식된 토대 위에 세워야 할 새로운 사회이다.(월터 미놀로 2010, 203-204)

수막 카우사이는 또한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논리를 비판한다. 서구 발전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의 삶이 후진적이고 전통적이며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근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 문화, 가치, 생산양식 등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원주민적 인 것’ 자체가 발전의 장애물이란 뜻이다. 그러나 CONAIE는 발전개념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결실도 빈약하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인류의 대다수가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며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조장과 자원추출에 의존한 발전이 지구 자체의 재생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다양성의 위기, 사회적 폭력의 증가와 테러,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근대화=산업화=경제성장=발전 이라는 논리가 발전 자체를 경제성장으로 축소하고 환원시켜 버렸다는 점을 비판했다(조영현 2012, 166-171). 서구가 제시하는 발전모델이 유일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전형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총생산이나 수출량 등 한정된 지표로 발전을 측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발전을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 CONAIE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담론도 비서구적 존재들을 은폐시키고 ‘타자’와 ‘자연’을 억압하고 배제하는데 정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반면에 코문(Comuna), 아이유(Ayllu), 협동조합, 연대경제 등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 제시했다. 최소한 이것이 공동체적 삶, 연대와 공존을 강조하며 살았던 원주민들에게 더 유효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투쟁

사파티스타들은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는 날 치아파스에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3000명의 참여했고, 무기를 구입할 자금이 없던 원주민들은 목총을 들고 싸웠다. 산 크리스토팔 시청사 뿐 아니라 오키싱고와 남동부 다섯 개 муниципιο(municipio)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초기 투쟁은 주로 무장 투쟁이었고 토지 점거 투쟁이었다. 연말에는 치아파스 주의 38개 муницип리오를 장악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세디오 대통령이 정부군을 파견해 사파티스타를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자 담론 전쟁에 능한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전선을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했다. 멕시코 정부도 국내외 여론, 콜로시오 제도혁명당 대선 후보의 암살과 같은 국내의 정치 상황, 외국인 투자 철수 문제로 인해 사파티스타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전략은 ‘저강도 전략(La guerra de baja

intensidad)' 이었다.

사파티스타들은 상호 대치의 소강상태를 틈타 계속적으로 선언서를 발표했다. 사파티스타들의 요구사항과 이념적 입장은 모두 이 선언서에 나타났다. 봉기와 함께 선포된 1차 선언서에서는 주로 민중 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농업 문제, 법에 의한 정의, 혁명세력의 의무와 권리 등이 표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교육, 보건, 민주주의, 독립, 노동, 주택, 정의, 평화, 자유와 문화 등이 언급되었다(García Gualda 2010, 19). 2차 선언서는 주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와 함께 사파티스타의 네트워크 투쟁도 강화되었다. 사실상 멕시코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의 필요 때문에 자생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던 시점에서 사파티스타의 출현은 네트워크의 중심점의 등장을 의미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파티스타의 네트워크 투쟁을 새로운 사회운동과 정치실험의 중요한 예로 언급한다.

사파티스타들의 투쟁에서 나타난 이 정치적 실험은 세계의 수많은 개인들, 활동가들, 정치 집단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얻었다. 인터넷에는 사파티스타 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연대 그룹들의 웹사이트들이 구축되었고 멕시코 정부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는 수많은 집회와 시위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직되었으며 멕시코 정부의 야만성을 정밀 조사하기 위한 국제 감시자들이 치아파스 지역으로 쇄도했다. 또 1996년과 1997년에 사파티스타들의 발의로 소집된 두 차례에 걸친 '인류를 위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륙간 회의'에는 수십 개의 나라들로부터 수천 명의 풀뿌리 활동가들이 운집하여 사파티스타 투쟁의 국제적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해리 클리버 1998, 381)

사파티스타들이 보여준 새로운 투쟁 모델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투쟁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다양한 사회 모순들에 대한 토론장을 사파티스타들이 열어젖힌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소통 능력은 정부군에 비해 취약한 사파티스타들의 힘을 보완해 주었다. 세계 각지에서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고,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치아파스로 쇄도했다. 네트워크 투쟁은 연대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사파티스타들의 제 3차 선언은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모든 반대세력을 통합

하는 ‘국가해방운동’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원주민 정체성에 대해 다루며 본격적으로 원주민들의 권리회복 문제와 존엄성 문제를 언급했다. 원주민 자치 문제와 원주민법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사실상 사파티스타들은 처음부터 원주민들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된 집단 자치권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한 통치, 문화적 권리, 원주민 공동체와 그 영토에 대한 법률적 인정, 영토와 그 속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개발과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디오 대통령은 자신이 파견한 평화화해위원회가(COCOPA) 합의한 산안드레스협정을 거부했다. 이유는 원주민들이 요구한 자치가 국가 통합을 저해해 ‘국가 내 또 다른 국가’를 양산하며, 모든 국민이 주인인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원주민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다(Harvey 2011, 170; 김윤경 2008, 101).

이런 상황에서 사파티스타들도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치아파스의 군사화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연방예방경찰 요원, 민병대, 군사주둔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긴장 속에서 1997년 원주민 45명이 악테알의 작은 성당에서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로 부녀자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

2000년 정권을 잡은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도 기존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고수했다. 그는 원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뺀 원주민법을 통과시켰지만 이것은 원주민들의 일부 문화적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파티스타들이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법이었다. 사파티스타들은 정부와 협상을 통한 원주민 권리의 입법화가 실패하자 마지막 선택으로 치아파스 내부로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은 제한적이거나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자치를 실천해 보려는 것이었다. 자치투쟁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의 자산인 토지를 수호하기 위해 찾아낸 정치경제적 대안이면서, 신자유주의 앞에서 농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생존전략이었다(Harvey 2011, 172-173).

치아파스 주 111개 무니시피오 중에서 사파티스타들이 장악한 70개의 무니

시피오에 사파티스타 자치지역이 조성되었다. 지역 별로 묶어 5개의 카라콜을 만들고 ‘좋은정부위원회(Junta de Buen Gobierno)’가 이 지역을 통치했다. 원주민비밀혁명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이 기구는 자치 행정의 핵심적인 조직이다. 지역 단위의 정부 당국자들은 모두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급여가 없는 봉사직이었다. 정부의 지원은 일체 거부한 채 국제적 지원만 선별적으로 받으면서 필요한 제정은 주민들의 집단노동(Trabajo colectivos)를 통한 수입에서 충당했다. 집단노동으로 생산한 것은 중간상인 없이 직접 거래하며, 공동창고를 운영해 관리했다.

교육과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 이중언어 정책을 실시하면서 스페인어보다 더 원주민 언어를 중시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고등교육보다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원주민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고,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위해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했다. 보건 분야도 의료인 양성과 지역 보건소 건설에 집중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치료보다는 병의 예방을 중시했으며, 전통 민간의학도 적극 활용했다. 술과 마약은 자치지역 내에서 금지되었다. ‘좋은정부위원회’는 협동조합 창설을 권장하고 공예품과 농산물을 통해 얻은 수입을 공동체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 이 자치 지역은 정부군에 의해 고립되어 있으며, 농업이나 가내수공업 이외의 다른 대안 산업이나 생활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조영현 2015, 115-116).

1990년 CONAIE가 주도한 원주민 봉기는 그들의 저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자 원주민 운동사에 하나의 이정표였다(조영현 2012, 156). 산토도밍고 성당을 점거하면서 시작한 봉기를 통해 원주민들의 막강한 조직력과 동원력이 확인되었다. 가두시위, 도로점거, 지방정부 사무실 점령 등 다양한 투쟁 수단을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그들은 헌법에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 천명과 사라야쿠 협약(el acuerdo de Sarayacu)의 실행, 농지세의 면제, 원주민 전통의학의 합법화, 원주민 단체의 부채 탕감, 토지문제의 합법화 등 16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Arias 2006, 220). 원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일정부분 수용되면서 봉기는 막을 내렸지만 CONAIE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토지에 대한 권리, 정치적 자치와 자율성, 관습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 인정 투쟁이 전개되었다.

1992년 CONAIE는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나라 원주민 조직들과 연대 투쟁을 벌였다. 1994년에는 식스토 두란 바엔 정부가 농촌 근대화와 자본주의화 전략으로 주도한 ‘농촌발전법’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후 에콰도르에서 구조조정, 안정화정책, 민영화 등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자 원주민 투쟁은 점차 다방면으로 확장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사회부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경제 위기에서 파생된 혼란은 사회위기로 확산되었다. 결국 이것은 정치 위기로까지 번졌다. 압달라 부카람을 비롯해서 하밀 마우앗, 루시오 구티에레스 등 세 명의 대통령이 CONAIE와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저항에 의해 퇴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카람은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 인상, 대통령 친족들의 공공기관 임명, 권력남용, 부패 문제로 사회운동 세력의 분노를 초래했다. 1997년 CONAIE가 앞장서 부카람의 퇴진운동을 주도했고, 공공노조, 사회운동협력체(Coordinador de Movimientos Sociales)가 적극 가담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공조해서 탄핵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출랑고 CONAIE 전 의장은 자신들이 구사하는 투쟁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는 누구와, 혹은 어떤 세력과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적대를 표명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의 급진화를 실천하는 것”이다(Resina De la Fuente 2011, 112).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은 의식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의 양상도 단순 가두시위에서 봉기, 필요할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도 점거했다. 이 마지막 방법은 정부에게 상당한 압력과 위협이 되는 투쟁 방법이었다. 도로를 통해 물류, 서비스, 원자재 등이 움직여서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데 이것이 마비되면서 경제적 혼란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협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 후 정권을 잡은 하밀 마우앗은 빈곤층을 위한 보조금 중지, 환율 자유화, 은행예금 동결, 연료가격 상승, 민영화, 2000년 ‘달러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IMF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자 CONAIE는 사회운동 협력체, 시민사회와 함께 마우앗 정권에 대한 핵심적인 반대세력으로 부상했다. CONAIE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직접적으로 원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고, 원주민을 착취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최종적으로 군부도 동조하자 마우앗은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CONAIE는 정부와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들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게다가 계속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기존 국가모델 자체에 대해 변혁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CONAIE는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토지문제에 대한 요구보다는 원주민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국가개조와 재구성 문제와 같은 포괄적인 이슈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토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급적 관점의 농민운동의 성격에서 ‘종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한 것이다(김달관 2012, 83). 변혁의 대상이 단순히 토지문제 등 지엽적인 것이 아닌 신자유주의체제와 같은 체제변혁과 기존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 차원으로 이미 전선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파레데스 무이라기는 CONAIE의 이런 위상과 관련해서 원주민운동이 단지 ‘주체’로 부상한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 사회와 정치무대에서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Paredes Muirragui 2011, 85).

2003년 루시오 구티에레스는 CONAIE, 원주민주의와 좌파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 성격의 파차쿠틡운동(El Movimiento de Unidad Plurinacional Pachakutik), 시민사회단체, 중도좌파의 지원에 힘입어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55%의 표를 얻어내 대통령이 되었다. 선거에서 CONAIE는 구티에레스의 승리를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원주민들을 동원하는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티에레스 대통령은 원주민을 행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고위직에 앉혔다. 그러나 그는 군인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국가를 통치했다. 경찰과 군인, 정보기관을 정치에 이용했다.

경제정책은 기존 정부들이 구사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답습했다. 가족, 친지, 동료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갔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월권으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특히 망명을 떠났던 부카람 전 대통령의 귀환 시도와 31명의 대법원 판사 중 29명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면서 위헌성 논란을 초래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도시 중산층이 시위에 가담하며 구티에레스의 해임과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5년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에 시민들이 격앙되자 구티에레스가 피신하게 되었다. 결국 의회는 대통령직에서 그를 해임했다.

CONAIE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봉기하며 에콰도르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했다. 다양한 사회운동, 그리고 좌파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당 성격의 파차쿠티운동당 창설에 핵심 세력으로 참여했다(Chiriboga 2004, 54). 원주민운동 지도자들은 거리투쟁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당은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를 합법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정당은 제도성, 권한, 전문성 차원에서 사회운동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Somuano Ventura 2007, 40). 1980년대에도 원주민 조직들이 정당과 연대한 선례들이 있었다. 이 경우는 주로 정치력, 조직력, 자금, 전략 등 정치적 역량 부족으로 좌파 정당의 구조 밑에 들어가 명령을 받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원주민운동이 강화되면서 역할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Somuano Ventura 2007, 43-46). 원주민운동은 이제 좌파 정당들을 선도하며 새로운 이념, 혹은 정치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기획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CONAIE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기획하고 새 헌법의 틀을 짜는 데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운동이 정당으로 발전하는 선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005년 말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운동당(MAS)이 에보 모랄레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원주민운동의 지도자들은 거리투쟁과 선거투쟁을 병행하려고 한 것이다. CONAIE의 의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시장,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원이 되고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것, 정치사회와 권력 투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이 길이 정치사회변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의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원주민운동과 정당과의 연대는 가능했다. CONAIE와 파차쿠티운동 당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것에도 앞장섰다. 200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00석 중 11석을 차지하며, 구티에레스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⁷⁾ 파차쿠티운동당의 입장에서 CONIE가 가진 원주민 동원 능력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차쿠티운동당 내에서 CONAIE는 영향력 있는 핵심 세력의 위치에 있었다.

CONAIE는 새로운 정치공간에서 노동운동의 리더십과 그 빈자리를 원주민운동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했다. 1994년 봉기 이후 다른 단체나 사회세력들과 연대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요한 목표인 토지문제조차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피했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다양한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담론의 틀을 키우며 동시에 정치력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마 카우사이(Sumak Kawsay)라는 메가 프로젝트는 이런 배경에서 설계된 것이다.

라파엘 코레아의 등장은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다. 기존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와 지지도를 보유한 코레아는 원주민운동을 약화시켰다. 사실상 CONAIE는 2006년 대선에서 코레아를 대통령

7) 파차쿠티운동당은 2006년 선거에서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원주민인 루이스 마카스를 대선후보로 등록해 2.19%의 표를 얻었다. 2009년에는 124석 중 4석을 차지했고, 2013년에는 137석 중 5석을 확보했다. 대선후보로 수막 카우사이와 다국민 국가 체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2008년 제헌의회 의장이었던 알베르토 아코스타를 후보로 내세웠지만 유효표 3.26%를 얻는데 그쳤다.

으로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일조했다. 근본적으로 코레아가 반신자유주의 노선의 좌파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CONAIE와 유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라파엘 코레아는 큰 정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서 국가발전을 달성하고자 했다. 자원추출과 1차상품 수출정책과 같은 예전의 발전전략을 답습했다. 따라서 CONAIE의 발전정책이나 노선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조영현 2012, 159). 코레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CONAIE가 사사건건 자신의 정책과 대립했기 때문에 원주민운동을 약화시켜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다. 사실상 2003년 구티에레스 정권의 몰락과 함께 CONAIE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로 예전과 같은 동원력이나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구티에레스 정부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그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CONAIE 지도부는 부패문제에 휩싸였고, 구티에레스가 권력남용, 권위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실시 등으로 낙마하자 그와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코레아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원주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범죄화하며 탄압했다. 게다가 코레아 정부는 원주민 공동체들과 직접 대화하고 선심성 정책을 사용하면서 CONAIE를 고립시켰다(Altmann 2013a, 27-29). 농지문제나 농촌지역 원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대변하기보다 정치문제와 권력 확장에 집중하던 CONAIE 지도부는 그들 조직의 토대인 원주민 공동체 문제들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티네스 바예는 이것을 ‘운동의 중심성 상실’로 정의했다(Valle 2005, 1-2). 다른 조직이나 세력들과 연대하기 위해 큰 담론과 연대의 외연을 넓히는데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원주민 공동체들의 요구에는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IV. 결론: 사파티스타운동과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의 대항헤게모니적 측면과 두 운동에 대한 비교 평가

사파티스타운동과 에콰도르 CONAIE는 원주민 투쟁의 대표적 모델이 되고 있다. 두 운동은 헤게모니를 장악한 신자유주의를 구체적 저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운동 모두 구조조정, 민영화, 국가역할 축소,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에 반대한다. 국가 자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부분 불안정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의문시한다.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그 체제가 가장 빨리 해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을 위한 유일한 체제와 모델이 아니라는 믿음이 좌파정권들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두 운동은 반신자유주의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항헤게모니운동’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진보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역사의 종언’을 외쳤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안은 없다’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나름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는 모든 사람들이 배제됨 없이 포함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많은 세계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한다. 현재 원주민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국가, 정치, 사회구조와는 ‘다른 사회’, ‘다른 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안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파티스타운동은 조직화되는 순간부터 다양한 하위주체와 사회영역들을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기존헤게모니에 대항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것은 제헌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에콰도르의 CONAIE도 문화적 차이의 인정과 대화를 강조하는 상호문화성, 원주민이 국가의 주요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인정받는 다국민국가, 그리고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수막 카우사이를 내세웠다. 이 담론은 서구 근대성의 시각에서 탈피해 보려는 원주민들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Altmann 2013b, 290). 그리고 현재 불의, 불평등, 배제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이 두 운동은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질서와는 다른 나름의 대안사회를 제시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대안사회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표 1> 사파티스타운동과 CONAIE 원주민운동에 대한 비교

	사파티스타운동	CONAIE
출현 배경	1) 식민적 유산/근대화(근대성)-식민성/배제적 단일국민국가. 2) 신자유주의 정책 실시, 북미자유무역협정. 3) 농촌의 파탄과 토지문제.	1) 식민적 유산/근대화(근대성)-식민성/배제적 단일국민국가. 2) 농촌의 파탄과 토지문제. *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시 이전부터 원주민조직이 존재(1986년 CONAIE로 통합).
조직	게릴라-군대-사회운동의 특성 지님. 좌파와 원주민의 결합. 조직 형성기에 가톨릭 진보진영 기여.	사회운동의 특성만 가진 조직. 원주민 중심 조직. 조직 형성기에 가톨릭 진보진영 기여.
담론	반신자유주의/반근대/탈식민. '다른 정치'/'복종하는 권력'	반신자유주의/반근대/탈식민. 수막 카우사이/다국민국가/상호문화성.
투쟁 형태	무력투쟁에서 사회운동으로. 국가개조 투쟁. 토지수호와 권리회복 투쟁. 네트워크 투쟁. 타 조직들과 선별적 연대 투쟁. 반신자유주의 투쟁. 대항헤게모니 투쟁. 반정부 투쟁, 자치 투쟁. '권력장악 없이 수행하는 사회 변혁'	사회운동. 국가개조 투쟁. 토지수호와 권리회복 투쟁. 네트워크 투쟁. 타 조직들과 광범위한 연대 투쟁. 반신자유주의 투쟁 대항헤게모니 투쟁. 반정부 투쟁, 자치 투쟁. 파치쿠틱운동당과의 연계(서거 참여).

대항헤게모니적이고 대안사회운동적 측면을 지닌 이 두 운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두 운동의 출현 배경, 조직, 담론과 투쟁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원주민운동은 무엇보다 원주민 정체성에 기반을 둔 운동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Rosa Quiñones 2007, 16). 여기에 더하여 인종적 위계 질서와 차별이 남긴 식민적 상처와 배제의 체제에 대한 반발로 봉기했다는 점,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적 특성, 집단적 권리 주장과 자치 실현 추구, 토지 회복과 영토성에 대한 인정, 고유한 관습법과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인정, 사이버 공간 상의 담론 전쟁에 집중,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Rosa Quiñones 2010; Olivera Salinas 2011).

식민화는 생활세계 전반에 걸친 원주민들의 삶의 질서를 왜곡시켰다. 멕시코

코와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식민화’과정을 통해 서구 유럽이 말하는 ‘문명화’, 혹은 ‘근대화’ 과정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주민은 주변화 되었는데 아니발 키하노는 인종에 의거한 인류의 사회적 분류, 즉 인종주의가 세계적 헤게모니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식민성의 요소라고 주장했다(Quijano 2000; 김은중 2009, 21). 사회적, 인식론적 수준에서 식민적, 인종적 위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어떤 급진적 프로젝트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 두 원주민운동에도 깔려있다. 이런 인종주의와 같은 식민적 유산이 남긴 상처에 저항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두 운동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그동안 인종적 측면과 식민성 문제를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제대로 포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운동에서 좌파와 원주민은 이제 공동적 인식에 도달한 듯 보인다. 식민성과 인종적 위계 구도가 인구의 일부나 대부분을 이등 시민으로 만드는 한 그 어떤 진정한 민주주의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운동은 자치나 다국민국가 체제를 통해 종속적 위치에 있던 원주민을 온전한 권리를 누리는 정치사회적 주체로 만들려고 한다(Olvera Salinas 2011).

또한 근대성, 식민주의 세계체제, 그리고 자본주의가 상호 구성적으로 동시에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두셀의 시각에서 보면 이 두 운동은 유럽 근대성, 합리성, 유럽중심주의와 그것이 주장하는 보편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사파티스타들이 상호문화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자치를 통해 이룩하려는 것의 내용이 상호문화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Olvera Salinas 2011, 72-133) CONAIE가 상호문화성과 다국민성을 통해 ‘다(多)보편성’, ‘이(異)보편성’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트랜스모더니티(Transmodernity)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에서 원주민들은 체제로부터 배제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긍정하고 고유한 문화를 재수립해서 세계와 대화하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랜스모더니티가 근대성을 구성하면서 근대성으로부터 배제된 문화들을 근대성 ‘외부로부터’ 긍정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유럽 중심의 근대성이 부정한 타자들이 창조적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개방하는 과정이 트

랜스모더니티라고 했을 때 더욱 그렇다. 특히 유럽-북아메리카 중심의 유일한 근대성 대신, 두셀이 식민화된 인민들의 인식론적 지역화로부터 출발하는 탈식민적, 비판적 제안들의 다양성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Dussel 2001, 345-408).

그러나 동시에 조직의 공고화 과정, 세력 확산 과정,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전략과 담론의 내용 면에서 차이점도 보인다. 투쟁의 형태가 다르고, 권력과 정치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도 다르다. 에콰도르의 CONAIE는 정치사회가 지닌 변혁 능력을 사회구조 변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보고 적극적으로 정치무대에 뛰어들어 권력을 장악하려고 노력한다. 소무아노 벤투라가 지적한 데로 파차쿠틱운동당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omuano Ventura 2007, 43-46). 반면 정치무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권력을 지배 문제로 파악한 사파티스타는 정당과 연대하거나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포기하고 정치사회에서 멀어져 소규모 점령지에서 원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사파티스타운동은 차아파스 라칸돈 정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적 공간에 유폐됐을 뿐 아니라, 지도부도 군사적 특성으로 인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osa Quiñones 2007, 3). 지도부 내부의 분파주의나 비밀주의, 타세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멘티니스의 지적에 의하면 사파티스타들의 민주주의적 담론과 원주민 공동체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 사이에는 중요한 모순들과 어긋남이 존재한다. 일례로 의사결정과정의 평등이란 없으며, 여성들은 사파티스타 봉기 이후에도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파티스타가 군대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군사화 된 문화가 있기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종하는 명령”도 하나의 신화로 축소될 수 있다고 멘티니스는 지적한다(Mentinis 2009, 321-323).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사파티스타운동이 보다 강력한 적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콰도르가 “약한 국가”의 전형이라면, 멕시코는 제도적으로 매우 공고한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원주민 구성비율 측면에서 볼

때도 멕시코는 에콰도르에 뒤진다. 에콰도르 원주민 인구는 최하 전체 국민의 24%에서 최고 51%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 내 원주민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5% 정도인데 치아파스 주에는 멕시코 전체 원주민의 10%가 거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멕시코는 강력한 지배엘리트 그룹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부분 원주민이 서구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에 상당부분 동화되어 있다(Rosa Quiñones 2007, 3-6). 이런 상황에서 사회변혁과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파티스타와 달리 CONAIE는 조직이 보다 팽창적이고 지도부가 개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위치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과 구성원의 평가에 따라 자주 바뀐다. 또한 자신들의 자치적 특성을 유지한 채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대해 정당정치에도 참여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두 영역에 발을 딛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CONAIE의 투쟁은 전국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항상 대중과 다른 사회운동의 가시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담론의 다양성과 포괄성 차원에서 CONAIE는 EZLN의 내용을 추월했다. 규모도 훨씬 크고 보다 구체적이다. 이미 헌법과 법률 조항에도 광범위하게 반영되었고, 국가 발전전략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성과 면에서 볼 때 CONAIE의 요구, 제안, 투쟁 전략 등이 사파티스타들의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많은 분석가들은 사파티스타들이 취하는 입장인 ‘권력을 갖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람시적 전략으로 보면 장기전, 즉 진지전의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진지전도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기존 헤게모니 세력에 의한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내부의 변혁의지나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잘못하다간 대항헤게모니로서의 설득력과 흡인력을 점점 상실할 수도 있고, 원래의 급진성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정부군에 의해 고립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일부 시민사회 세력과 국제적 네

트위크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조나 정당, 다른 좌파와의 연대도 거부하는 이런 투쟁방식으로는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점차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가는 것도 대항헤게모니운동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멘티니스가 높이 평가한 것처럼 악조건에서도 사파티스타들은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신자유주의적 투쟁에 선봉에 서서 그 투쟁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파했고,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의 허브가 되어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조직해 내는데 성공했다. 비록 한계가 있을 지라도 가장 먼저 새로운 변혁적 혹은 혁명적 언어들을 개발해 내고 혁명적 상상력을 고무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Mentinis 2009, 393-413).

참고문헌

- 김달관(2015), 「볼리비아의 탈식민적 국가개혁- 다문화성에서 다국민성으로」, 중남미연구, Vol. 34, No. 2, pp. 75-115.
- (2012), 「에콰도르 원주민운동」,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12 라틴아메리카 정치안정과 경제회복』, 이숲.
- 김기현 · 권기수(2011),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한울.
- 김윤경(2008), 「멕시코 사파티스타운동-새로운 세계를 향한 원주민 운동」, 서양사론, No. 97, pp. 85-115.
- 김은중(2009),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넘어서: 권력의 식민성과 경계사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1, No. 1, pp. 1-33.
- 미하리스 멘티니스(2009), 『사빠띠스파의 진화』, 서창현 옮김, 갈무리.
- 부사령관 마르코스(2002), 『우리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윤길순 옮김, 해냄.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2008), 『다중』,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거름.
- 애너 캐리건(2002), 「치아파스 최초의 포스트모던 혁명」, 『우리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윤길순 옮김, 해냄.
- 월터 미놀로(2010),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김은중 옮김, 그린비.

- 이원영(1998), 「사빠띠스따의 ‘간대륙주의’와 ‘민족 자율’ 문제」, 해리 클리버, 『사빠띠스따. 신자유주의, 치아빠스 봉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갈무리.
- 조영현(2015), 「신자유주의와 멕시코 사회운동: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에서 ‘나는 132번째다’까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편,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적 시민권』, 이숲, pp. 101-138.
- _____(2012), 「에콰도르 원주민운동과 ‘발전의 대안’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편, 『오늘의 라틴아메리카』, 두솔.
- 조영현 · 김달관(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Vol. 31, No. 2.
- 존 홀러웨이(2002),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조정환 옮김, 갈무리.
- 해리 클리버(1998), 『사빠띠스따. 신자유주의, 치아빠스 봉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갈무리.
- Altmann, Phillip(2013a),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como movimiento social,” *Revista Andina de Estudios Políticos*, Vol. 3, No. 2, pp. 6-31.
- _____(2013b), “El Sumak Kawsay en el discurso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INDLANA*, No. 30, pp. 283-299.
- Arias, Custodio(2006), “Ascenso y crisis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1990-2006,” *Investigaciones Sociales*, Año X, No. 17, pp. 217-234.
- Bernardo Mazzella, Nicolás(2009), “Neoliberalismo, movimientos sociales y emergencias políticas en América Latina,” *XXXVII Congreso de l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sociologí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sociología*, Buenos Aires, <http://www.aacademica.com/000-062/1049>.
- Chiriboga, Manuel(2004), “Desigualdad, exclusión étnica y participación política: el caso de Conajje y Pachacutik en Ecuador,” *Alteridades*, Vol. 14, No. 28, pp. 51-64.
- CONDENPE(2011), *Plurinacionalidad*, Quito: CONDENPE.
- Davalos, pablo(2002),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Construcción política y epistémica,” <http://icci.nativeweb.org/yachaikuna/3/davalos.html>.
- Diez, Juan(2002), “Construyendo una nueva sociedad. Los aportes de la CONAIE el EZLN y el movimiento mapuche,” <http://politicalatinoamericana.sociales.uba.ar/files/2011/07/diez.pdf>.
- Dussel, Enrique(2001), *Hacia una filosofía política crítica*, Bilbao: Desclée.

- Garcia Gualda, Suyai M.(2010), *Movimientos Indígenas: Resistencia y lucha contra hegemónica por territorio y autonomía en América Latina. ¿Otra democracia es posible? Análisis de la experiencia Zapatista y Mapuche*, Mendoza: Universidad Nacional de Cuyo.
- Gudynas, Eduardo(2011), “Buen vivir: germinando alternativas al desarrollo,” *ALAI*, No. 462, pp. 1-20.
- Harvey, Neil(2011), “Más allá de la hegemonía. El zapatismo y la otra política,” Baronnet Bruno(coord.) *Luchas “muy otras” zapatismo y autonomía en las comunidades de indígenas de Chiapas*, México: UAM-X.
- Jo, Young-Hyun(2007), “La Iglesia a favor de los pobres en Chiapas,” Carlos Arteaga Basurto et. al., *Estado, economía y pobreza en México*, México: UNAM.
- Macas, Luis(2011), “El sumak Kawsay,” Gabriela Weber(Coord.), *Debates sobre cooperación y modelos de desarrollo. Perspectivas desde la sociedad civil en el Ecuador*, Quito: CIUDAD.
- Martínez, Luciano(2005),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en la encrucijada,” *ALASRU*, No. 2, pp. 1-14.
- Matínez Valle, Luciano(2005),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en la encrucijada,” *ALASRU*, No. 2, pp. 1-14.
- Olvera Salinas, Rene(2011), *La “otra campaña” ¿Un proyecto político intercultural?, Programa de Maestría internacional en Estudios Latinoamericanos*, <http://repositorio.uasb.edu.ec/bitstream/10644/2508/1/T0972-MELA-Olvera-La%20otra.pdf>.
- Paredes Muirragui, María Lorena (2011), *Proceso de cambio político en el Ecuador contemporáneo: un contrapunto con Venezuela*, Quito: FLACSO-Abya Yala.
- Quijano, Anibal(2000),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erica latina,”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lander/quijano.rtf>.
- Resina De la Fuente, Jorge(2011), “Participación y percepción de la CONAIE en el Ecuador plurinacional,” *Ciencias Sociais Unisinos*, Vol. 47, No. 2, pp. 108-115.
- Revilla Blanco, Marisa(2005), “ropuesta pra un análisis del movimiento indígena como movimiento social,” *Política y Sociedad*, Vol. 42, No. 2, pp. 49-62.
- Rosa Quiñones, Isabel de la(2010), *Movimientos indígenas contemporáneos en Ecuador y México*, México:UNAM-CIALC.
- (2007), “Discursos, organización y liderazgos: rasgos comunes en la diversidad. Notas para aproximarse a los movimientos indígenas en Latinoamérica,” *XXVI Congreso de l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Sociologí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Sociología*, Guadalajara, <http://www.academica.com/000-066/1180>.

Simbaña, Floretilo(2011), “El Sumak Kawsay como proyecto político,” *Más allá del desarrollo*, Quito: Abya Yala.

Sommano Ventura, Ma. Fernanda(2007), “Movimientos sociales y partido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una relación cambiante y compleja,” *Política y Cultura*, No. 27, pp. 31-53.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latin-j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5일

The indigenous movements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Zapatista movement and the 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Young-Hyun Jo

Seoul National University

Jo, Young-Hyun(2015), The indigenous movements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Zapatista movement and the 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Abstract The emergence of multiple social movements has propell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litical dynamics of Latin America. The strengthening of indigenous politics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dimensions of such changes. In this aspect, the CONAIE(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and the EZLN(Zapatista Army of National Liberation) are thos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These indigenous movements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modern/colonial world system and they have challenged how social relationships are woven into the capitalist system. They have also been at the forefront in proposing alternative ways to achieve just and worthy social relations.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ideologies, organizations and practices of EZLN and CONAIE. It also tries to illustrate the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of them.

Key words CONAIE, EZLN, Counter-hegemonia, Neoliberalism, Coloniality